



## 서울 광화문광장에 국민통합 걸개그림이 걸렸다

국민통합위원회, 다양한 배경 국민이 참여한 작품 ‘모두가 이웃, 함께 사는 우리’ 선보여

-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(위원장 김한길, 이하 통합위)는 2월 28일(금) 서울 광화문광장에, 국민통합의 중요성과 가치를 환기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염원을 담은 설치미술 작품 ‘모두가 이웃, 함께 사는 우리’를 공개했다.
- 이번 국민통합 캠페인의 설치미술 프로젝트는 노년층과 자립준비청년, 북배경주민과 이주배경 어린이, 청년과 장애인, 한부모 등 다양한 배경의 국민 12명이 작품 제작에 참여했다.
- 설치작품의 콘셉트는 ‘한 쌍의 이웃들, 서로 다른 밝은 표정의 얼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국민통합을 형상화한 것’이며 광화문광장 중앙 쪽 경사로의 지하 방향 우측 계단 벽면에서 6월 말까지 4개월간 볼 수 있다.
-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“최근 많은 국민이 한국 사회의 첫 번째 당면과제로 ‘국민통합’을 꼽고 있다.”라며 “각자의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모두가 상생하는 국민통합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”이라고 강조했다.  
아울러 “지난 2년 반 동안 국민통합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통합의 노력을 기울인 다양한 배경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통합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만들어주신 걸개그림이라 더욱 뜻깊다.”라는 소감도 덧붙였다.

\* 위 캠페인 과정은 국민통합위원회 유튜브와 작품 옆 큐알(QR)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: 광화문광장 설치작품 이미지 예시

- 따로 붙임
1. 국민통합 캠페인 영상
  2. 국민통합 캠페인 사진
  3. 설치작품 디자인 시안

담당부서	국민통합지원단 미디어소통과	책임자	과 장	오 세 용 (02-2100-3471)
		담당자	주무관	조 은 정

붙임. 광화문광장 설치작품 이미지 예시

